

96년 농수산식품 포장디자인 지원액 대폭 늘어날 계획

뒤쳐진 농수산식품 포장발전 위한 정책 마련

오병석 / 농림수산부 가공산업과 사무관

우리나라의 농수산식품이 세계 각국에서 그 품질을 인정받고 빠르게 뺏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포장으로 더 많은 성장을 제한받고 있어 정부도 우리 농수산식품 포장의 질적 개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키우고자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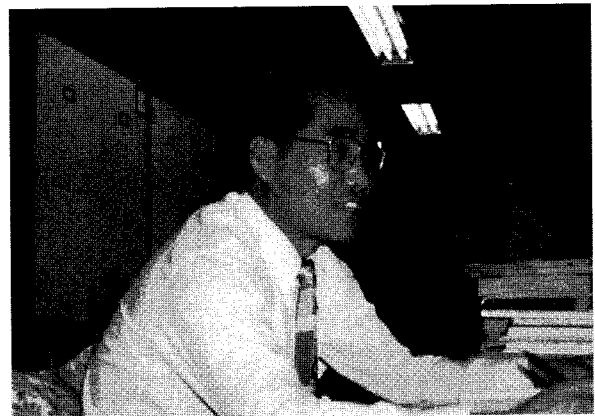
농림수산부 가공산업과에서 포장관련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오병석 사무관은 부산식품검역소에서 지난해 농림수산부에 부임하여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우리 농수산식품의 향상을 위해 업체들을 지원하는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다.

오 사무관은 “농화학을 전공하여 일에 있어서는 비교적 잘 적응하지만 행정적인 것이 아직 미흡합니다. 얼마되지 않은 기간동안 업무를 진행해 왔으나 국내 농수산식품 포장의 질이 너무 떨어져 제품의 우수성마저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농림수산부는 금년도 포장디자인 개발비용으로 19억2천만원을 투자했으며 이중 현재(11월)까지 55% 정도를 사용한 상태며 148개업체가 지원을 받아 현재 완료된 건수만도 70건에 달한다고 한다. 한편 실제적인 업체지도는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이나 대학교수 등이 수행하고 있는데 업체들이 정해진 분야가 아닌 다른 용도로 자금을 활용하는 문제점도 나타나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도에는 이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 예산이 올해보다 대폭 늘어난 약 63억원으로 잡혀있어 지금까지 용기를 소모품으로 취급하여 지원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용기도 주물이 필요하고 종류도 다양해 지원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지원한도에 제한을 두지않고 적극 장려할 것이라고 한다.

“업체들을 지원한 결과 어느 한과업체의 경우 매출의 64% 늘고, 수출도 늘었으며 한 수산업체의 경우도 젓갈류 포장디자인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개발함으로써 판매량이 100%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라고 밝힌 오 사무관은 “더러 업체들이 불만을 갖고 이의를 제기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내년도에는 농수산물유



▲ 오병석 사무관

통공사 가공산업부에 관련평가부서를 따로 두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27일부터 여의도광장에서는 농림수산부 주최로 ‘농수산식품 대축제’가 열렸는데 포장재부문에 대한 별도의 시상도 있었다. 오 사무관은 이날 포장재부문 심사를 맡기도 했는데 심사결과 예년에 비해 포장부문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 안타까웠으나 전반적으로 칼라가 많이 향상되고 있으며 기능향상을 위한 업체들의 노력이 배증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더욱이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용 포장재에 표기가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과 세계적인 디자인 경향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것은 업체들이 영세해 해결할 여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에 정부에서는 내년 한미식품조사연구소를 설립하고 충분한 시장조사 등의 업무를 대신함으로써 업체를 도울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제 서른다섯인 그는 “우리나라 주류포장의 디자인을 살리고 주류상품으로 키워 수출을 대폭 늘릴 것과 업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교육의 기회를 좀 더 늘릴 것”이라고 다짐하며 말을 맺었다. [K]

이선하 기자